

김효주, LPGA 롯데챔피언십 정상 등극...LPGA 5승째

롯데 골프단 소속으로 스폰서 주최 대회서 시상식 정복

“다른 대회보다 두 배로 기분 좋아...부담감 이겨냈다 증명”

김효주(27·롯데)가 활짝 웃었다.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의 시상대를 정복했기에 기쁨은 더욱 컸다. 김효주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의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적어낸 김효주는 시부노 히나코(일본)의 추격을 2타차로 뿌리치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3억6900만원)다. 김효주의 LPGA 대회 제패는 지난해 5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이후 11개월 만이자 통산 5번째다. 후원사 대회에서의 우승이라 더욱 의미있었다. 개막 전부터 김효주는 “스폰서 대회 우승 자체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며 의

욕을 드러낸 바 있다. 김효주는 “다른 대회보다 두 배로 기분이 좋다. 굉장한 부담을 이겨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이 여는 대회에서 잔치 분위기를 이뤄낸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미소를 보였다. 이어 김효주는 “초대 대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대회에 참가했었는데, 스폰서로서 주최하는 대회라 정말 우승하고 싶었다”면서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성적을 못냈기에 조금 슬펐다. 올해 이 대회를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승은 나에게 더 특별하고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1,2라운드 모두 67타로 멀찌감치 달아난 김효주는 3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정상으로 가는 길 역시 순탄치 않았다. 3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맞이한 김효주는 5번홀 버디로 기세를 올렸다. 8번홀에

서도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려 치고 나갔다. 하지만 9번홀에서 1타를 잃어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다. 파4홀인 17번홀에서는 보기로 위기를 맞았다. 2위 시부노와의 격차는 1타까지 줄었다. 김효주는 끝까지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 부담이 컸던 마지막 18번홀 버디로 집전을 끝냈다. 역전을 바라봤던 시부노는 18번홀에서 파에 그쳐 2위에 만족했다. 김효주는 “버디를 하지 않으면 연장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있었기에 부담과 경쟁을 느끼진 못했다. 시부노가 굉장히 잘 쳐서 감탄했는데 내 경기에 좀 더 집중하면서 플레이했다”고 돌아봤다. 또 다른 롯데 소속 선수인 루키 최혜진(23)은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로 단독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혜진은 “아무래도 우리 스폰서 대회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신인 자격으로 투어에 소화 중인 최혜진은



김효주가 16일(현지시간) 하와이 오아후섬 에바비치 호아칼레이CC에서 열린 LPGA '롯데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흥기획 제공)

지금까지 성과에 흡족한 반응을 보였다. “5경기 정도 했는데, 루키로서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최혜진은 “투키 시즌인 만큼 공격적이고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는 한 해를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

혹시 부상? “류현진, 왼쪽 팔뚝 통증 호소”



두 경기 연속 부진한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왼팔 불편함을 호소했다. 류현진은 17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6피안타 5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개막전에서 3⅓이닝 5피안타(1홈런) 2볼넷 4탈삼진 6실점으로 주춤한 류현진은 이번에도 난조를 보였다. 경기 후에는 왼팔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다.

스포츠넷 캐스터 헤이젤 메이는 경기 후 “류현진이 왼쪽 팔뚝 통증을 느꼈다. 현재 치료 중인데 경과에 따라 내일 오전 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도 류현진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시인했다. 몬토요 감독은 “물론 걱정이 된다”면서 “류현진이 어떻게 느끼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몬토요 감독은 경기 후에 류현진의 상태를 확인했다면서 투수 교체와 통증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스

오클랜드전 4이닝 5실점 몬토요 감독도 건강상태 시인

류현진은 토론토의 로테이션 조정으로 5일 휴식 후 등판했지만 타자들을 전혀 압도하지 못했다. 류현진은 총 53개의 공을 던졌고 이중 33개가 스트라이크로 기록됐다. 포심 패스트 볼 18개, 커터 15개, 체인지업과 커브 10개를 섞어 던졌다. 빠른 공 최고 구속은 90.2마일(약 145km)에 그쳤고, 평균 구속도 88.7마일(약 143km)에 머물렀다. 개막전 최고 91.5마일(약 147km), 평균 90.1마일(약 145km)보다 수치상으로 좋지 않았다. 장점인 제구마저 흔들리면서 타자들의 먹잇감이 됐다. 류현진은 1-0으로 앞선 2회초 선두타자선 페피의 2루타와 셸던 노이스의 적시타로 1점을 빼앗겼다. 이후 케빈 스피스, 크리스티안 베타코트에게 연거푸 2루타를 헌납해 순식간에 3점을 내줬다. 3회에는 1사 1루에서 페피에게 투런포를 맞았다. 2B에서 카운트를 잡기 위해 한 가운데로 던진 88.2마일(약 142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 당했다. 류현진은 2-5로 뒤진 5회 시작과 함께 마운드를 내렸다. 타선이 6회말 5-5 동점을 만들어 패전은 면했다. 하지만 토론토는 9회 2실점 해 5-7로 졌다. 토론토는 하루 지켜본 뒤 류현진의 정확한 상태를 알릴 예정이다. 뉴스

완도군청 이양재,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대표 선발전서 ‘금빛바벨’ 번쩍

완도군청 역도팀 이양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대표 선발 평가전에서 금빛 바벨을 번쩍 들어올리며 109kg 이상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14일 강원도 양구(용하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평가전’에서 이양재(완도군청)가 우승을 했다고 밝혔다. 이양재(완도군청)는 이번 대회 남일부 109kg 이상급에 출전해 인상 178kg, 용상 230kg, 합계 408kg을 들어올려 이재상(경남도청)과 송영환(충청군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양재는 대회 2주전 훈련중 손목부상을 입어 정상적인 훈련이 부족하였으나 부상을 딛고 강한 정신력으로 시합에 임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반면, 고흥출신 ‘세계선수권 챔피언’ 신록은 남자61kg급에서 김용호(포천시청)에게 합계 2kg차이로 아쉽게 2등에 머물렀다. 이양재(완도군청)는 “손목부상으로 힘들었지만, 금메달을 따 매우 기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부상없이, 더 좋은 경기성적으로 찾아뵙겠다”며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서호철 완도군청 감독은 “코로나19 등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준 이양재선수가 참으로 대견스럽다”며 “9월에 있을 아시안게임에서 완도군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11월 완도에서 전국주니어 역도경기대회 개최를 부족함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장애인 좌식배구팀 ‘우승 목표’ 연일 훈련 구슬땀

순천시 장애인 좌식 배구선수들이 오는 5월 11일부터 순천에서 열리는 제3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우승을 목표로 순천시장애인복지관 실내체육관에서 연일 훈련에 매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순천시 장애인 좌식배구팀은 전문적인 좌식 배구 선수 가 아닌 생업에 종사하면서 취미와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있는 일반 지체장애인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회를 한 달여 남짓 남겨둔 요즘 선수들은 매일 순천시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 모여 스파이크, 블로킹, 서브, 수비 등 기본기 훈련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팀워크를 갖추어 가고 있다. 순천시 좌식 배구팀을 이끌고 있는 조상미 지도사는 “선수들 모두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승리에 대한 열의도 대단하다”며, “이번 대회에서 우리 순천팀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전남도,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개최

10월 순천 용계산서...아시아 25개국 2천여명 참가

전남도가 코로나 시대 새롭게 각광받는 산악자전거 저변 확대와 적극적인 산악레포츠 문화선도로 신성장산업을 이끌기 위해 아시아 25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하는 ‘2022 아시아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한다. 아시아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순천시 용계산 산악자전거 대회장에서 아시아 25개국의 선수단, 자유선수 참가단이 참가해 열린다. 대회 유치를 위해 전남도는 2020년 2월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업무협약을 했고, 2021년 7월 아시아자전거연맹으로부터 최종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국제경기 규모에 맞춘 대회장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46억 원을 들여 순천 용계산 일원에 크로스컨트리 4.3km, 다운힐 2.8km, MTB지원센터, 용계센터 등을 조성했다. 경기장은 순환 노선을 따라 다양한 구간과 난이도의 숲길을 달리는 ‘크로스컨트리코스’ 올림픽경기(XCO), 릴레이경기(XCR), 토너먼트경기(XCE) 3개 코스(4.3km)와 산 정상부에서 빠르게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다운힐 A코스(1.3km), B코스(1.5km)로 이뤄졌다. 이번 경기 우수 선수에게는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한다. 다운힐에 12개(금 4·은 4·동 4), 크로스컨트리 15개(금 5·은 5·동 5)의 메달이 걸려있다. 가장 좋은 기록을 세운 남자 선수 1명, 여자 선수 1명에게는 2024년 파리 올림픽 산악자전거(MTB) 경기 출전권이 부여하며, 이 대회 성적으로 세계 랭킹 순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자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전남도는 순천시, 대한자전거연맹,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추진위를 구성해 경기 운영, 대회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외 자전거회사, MTB 전문업체, 임업단체와도 협약을 해 대회 기간 무상 점검 서비스, 홍보부스 운영 등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숲에서 즐기는 모험과 체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제경기를 통해 전남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소년에서 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즐기는 코스도 함께 마련해 산악자전거 수요에 대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전남체육회는 전남과학대 김동현(사진 왼쪽부터)과 광양시청 가수형, 곡성군청 김현미 등 3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됐으며 최복음은 후보, 백중윤(이상 광양시청)은 상비군에 발탁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전남체육회 제공)

전남볼링 김동현·가수형·김현미 국가대표 발탁 최복음·백중윤 각각 후보·상비군 선발...“국제대회 좋은 성적 거두길”

전남 볼링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동현·가수형·김현미 등 5명이 국가대표와 상비군에 뽑혔다. 전남체육회는 전남과학대 김동현과 광양시청 가수형, 곡성군청 김현미 등 3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됐으며 최복음은 후보, 백중윤(이상 광양시청)은 상비군에 선발됐다고 17일 밝혔다. 김동현은 경북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에서 열린 ‘2022년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합순위 2위, 최종합계 1만1447점(에버리지 238.5)을 기록해 처음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었다. 가수형은 종합순위 3위, 최종합계 1만1325점(에버리지 235.9)을 세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여자부에 출전한 김현미는 대회기간 내내 꾸준한 페이스를 펼치며 선두자리를 지켜 중

합순위 1위, 최종합계 1만1274점(에버리지 234.9)을 기록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최복음이 종합순위 11위, 최종합계 1만1154점(에버리지 232.4)으로 후보, 백중윤은 종합순위 13위, 최종합계 1만1114점(에버리지 231.5)으로 상비군으로 선발됐다. 이번 경기는 남녀 각각 60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하루 8게임, 6일간 매일 다른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렀다. 상위 2위까지는 오는 7월 미국 버밍햄에서 열리는 ‘2022 월드게임’에 출전하며 이 외에도 11월, 아시아선수권에도 출전 예정이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며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거두 나라와 전남의 실력을 입증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